

사찰 복지통장 등장

동화사 첫 개설... 불우이웃돕기등 복지활동

불교복지관 건립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사찰복지통장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지난 8월 중순 복지통장(금마련)을 위한 복지통장(농협 5당회 712-17-000934, 예금주 동화사)을 개설하고 교구차원의 기금모금에 들어갔다.

모금을 위해 동화사는 대웅전 4모금함을 설치한 것을 비롯 0여개에 달하는 각말사에도 시금함과 별도의 복지기금전용 2금함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9월 24일 열린 교구총회에서 대경·경북지역 불교복지의 실태와 개선방향 등을 다룬 불교복지사 계획서를 배포하여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지금까지 단위사찰별로 북한동

포동기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불우이웃 돕기 명목으로 분담금을 할당할 경우가 있었으나 교구본사 차원에서 온라인 복지통장을 개설한 것은 동화사가 처음이다. 즉 개별사찰단위의 복지활동이 타종교에 비해 규모나 지속성면에서 열악하다고 판단, 분사차원에서 복지활동을 떠나가기로 한 것. 또한 분담이나 할당이 아닌 자발적인 복지운동차원으로 전개하는 점이 특이하다.

동화사는 향후 불교사회복지관 및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등을 설립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동화사는 지난 9월 그동안 모금액 중의 일부를 수재민들 기성금으로 상주시청과 불교대 구방송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동화사가 개설한 복지통장은 IMF시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우이웃을 돕고 나가

가 지역불교복지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동화사 복지통장 개설이 좋은 반응을 거둘 경우 타지역 사찰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윤호 기자 (yhnlee@buddhopia.com)

제천 장애인복지관 개관

충청권 불교사회복지 교두보될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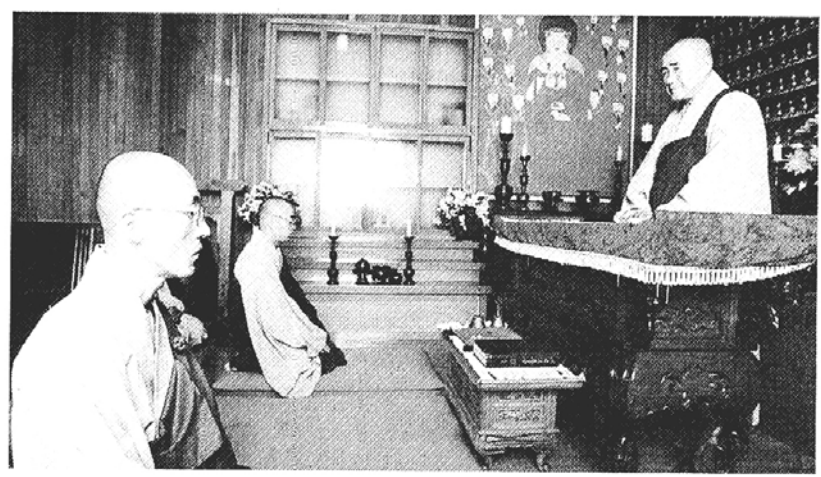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충북 제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스님)이 10월 9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복지서비스를 개시했다.

제천시 청전동 689번지에 대지 3백30평, 건평 5백8평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에 자리잡은 복지관은 1층에 상담실 어린이

교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목욕탕, 2층에 작업재활실 강당 식당, 3층에 사무실 자원봉사실 자료실 등 첨단시설을 고루 갖췄다.

앞으로 상담 의료 심리 언어 교육 직업 등에 대한 진단·관정 사업, 의료 교육 직업재활 사업, 사회교육 자원봉사 계몽 등 지역 사회복지사업, 지역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등 연구개발사업, 가정방문상담 결연·의료재활서비스 병의원통원 차량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사업, 무료급식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제천장애인복지관은 불모지와 다름없는 충청지역 불교사회복지 사업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훌륭한 강사되길...
종범스님(중앙승가대학교)은 8일 김용동 승현사에서 전강식을 열고 해월·우진스님에게 각각 강맥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전사인 종범스님이 1971년 1월15일(음) 통도사에서 당시 강주였던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골 한국송환 청원

고려사 청와대에

30년째 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유골의 본국 송환운동을 절치고 있는 일본 교토(京都)의 조계종 고려사 주지 태연스님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정부가 유골 봉환사업에 적극 힘써 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최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일제 치하에서 군인이나 군대 위안부 보국대원으로 끌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묻혀 있는 한국인 유골은 75만여 구 일본 사할이나 신사(神社) 폐광 등 3천4백60여곳에 방치돼 있다. 이 가운데 1천1백40구의 유골은 현재 도쿄(東京)시내의 일

본 정토종(淨土宗)사찰인 우천사(祐天寺)로 옮겨져 날땀당에 봉안돼 있다.

태연스님은 청원서에서 "고국에 묻히지 못한 한많은 유골들을 봉환한 뒤야야 한일 과거사 청산을 말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과 남북한 정부 등 재일 동포가 힘을 합쳐 유골봉환 작업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가리앉을지 두고 볼 일이다.

"건칠지불" 제작 논란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한평생 외길을 걷는 장인이자 자신의 작품이 누구에게나 부끄럽지 않게 온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남의 도둑을 받았다면 몇몇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성보는 무슨 짓을 해서든 상(賞)을 타겠다는 욕심이나 단순히 손기술만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인식시켜주고 있다. 또한 전승공예대전 주최 측은 전문성을 보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뒷말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상의 손 부분을 다른 사람의 작품을 갖다쓰는 일이 관행이라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규정상의 명확성도 이번에 보완해야 한다. (jygang@buddhopia.com)

조계사 원심회 창립 10년

불교수화-점자책 무료보급

8일 조계사에서 기념법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 한몸 스러워진 그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저마다 재삼 꾸리기에 정신이 없다. 장애인들과 함께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조계사 원심회(회장·역신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가 가장 있었던 점은 비장애인들의 "그릇 인식"이었다. 누구나 한 순간 장애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 입에도 불구, 그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장애인들은 물질적 보시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길 원한다. 이런 나눔의 마음으로 장애인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사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감대 형성을 위해 정진해 온 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원심회는 18일 오후 3시 조계사 화교유관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각 장애인들을 위한 불교수화책, 각장애인들을 위한 불교점자책 및 교독음성도서를 발간해 무료로 배부한다. 특히 (불교 수화 용어집) 정 정보판과 불교점자서도(모바일화) 1백권을 청각장애인과 점도서관, 맹아학교 등 관련단체 보낼 계획이다.

원심회는 10주년 행사를 기념 원불사자들의 도움으로 녹음도 제작, 점자도서 출판을 위한

컴퓨터 입력작업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경전은 물론 일반도서까지 출판하여 점자도서관 등에 보급을 늘려나가고 청각·시각장애인들에게는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심회는 후원회원과 함께 하는 법회를 정례화하여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일반 수화를 통해 잘못 전달되고 있는 불교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불교수화 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수화를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을 좁혀가는 교계 유일의 장소와 계기를 제공해 온 원심회는 장애인(友) 포교의 중심지가 되어 왔다.

청각장애인 정기법회를 개설하고 자체 법당도 마련했다. (불교수화 용어집)을 발간하고 점자부서 개설하면서 (아미타경)과 (법화경) 등의 컴퓨터 점자 경전도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지막 비디오테이프 제작과 함께 바둑강좌도 개설하고 지난해에는 수제법회까지 열어 30여명의 회원들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 나도록 했다.

원심회 회장 역신스님은 후원인과 함께하는 법회를 정례화하고 '불교수화 연구회'를 구성, 불교수화를 정립하는 동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도량건립의 원을 세우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공통제작 시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9월29일 제2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작인 상기호씨의 '건칠지불'에 대한 사상은 예정대로 실시했지만 시상식은 예상대로 열리지 않았다. 문화관광부장관과 대통령상을 대신 수여했던 장관급 인사, 문화재관리국장 등이 모두 불참했고, 옷칠전문가 한자공예가 등으로 구성된 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에서는 불상의 손부분을 다른 사람이 만들어 주는 등 단독제작도 아닐 뿐더러 옷칠과 금도금을 한 이상 지공예가 아닌 칠공예분야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상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승공예대전은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수상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수 전승공예인들의 대응문이며 불교공예인들의 배어난 기량을 볼 수 있는 전승공예대전이 지난해에 이어 잇달아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보는 마음이 안타깝다. 더구나 고려사대 이후 맥이 끊겼다는 '건칠지불'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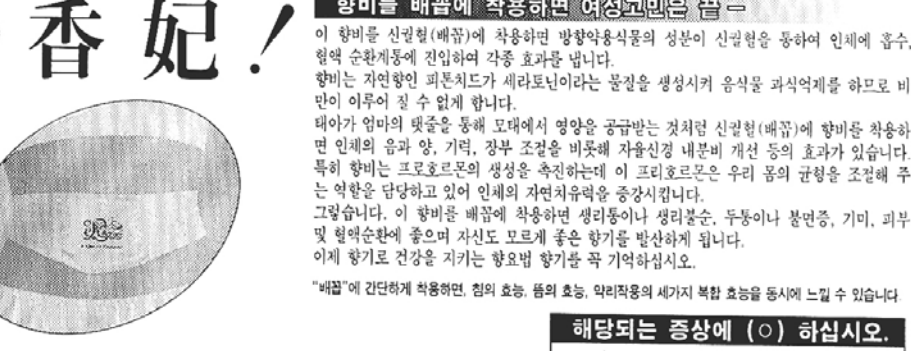
목탁 소리

강지연 <취재2부 기자>

원이라는 큰 경사에 대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리 한 시비에 휘말려 불교계로서는 착잡한 기분이다. 몇백년의 단절 끝에 재현된 건칠지불의 의미가 계속된 시비로 퇴색되고 있는 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앞으로 '건칠지불' 제작자가 옷칠과 도금을 시연했거나 시비가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팩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형(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식물의 성분이 신권형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낫는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식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형(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무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몸의 효능, 악취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기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통이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뱃살이 검고 딱딱하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진면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배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번민이 심한 편이다
- 18 담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문은 즉시 전화하세요.

제철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일체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를 배꼽(신권형)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썹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불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물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까지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서주구 김미선)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지리에 적용하면 생기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지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로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작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으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명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 34-9490, 34-9491
야간 : (0342) 706-3060